

목표달리다



군산해경, 배타적경제수역 해상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17일 오후 1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38km 해상에서 제한 조건위반혐의로 265톤급 중국어선 1척을 니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이 선박은 중국 영파에서 출항해 지난 13일 오전 4시와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2차에 걸쳐 고풍어 4톤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2톤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EEZ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어획량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해경은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가을철 수목정비

익산시는 가을철 나무의 넘어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익산시 공원 내 나무의 가지치기, 지주끈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공원 내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느티나무 등 대형목을 중심으로 죽은 가지치기, 도장지 등을 제거하고 지주목 정비 등을 통해 수목의 넘어짐 방지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 봄·여름을 지나며 자란 나무는 가을이 되면 굳어지고 단단해진다. 특히 주변 가지보다 못자란 가지는 바람, 눈에 약해 부러질 우려가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수목정비를 통해 안전사고에 힘쓰고 있지만 태풍 등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나무가 넘어지고 가지가 부러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큰 나무 결절을 지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모집

군산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팀장)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계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도시재생선도지역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의사전달,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지원과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도시재생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시공동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 채용을 통해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열정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김영석 해수부장관 오늘 군산 방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등 전북지역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군산을 방문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요업무 보고받고 직원을 격려한 다음 해양수산 업무 단체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군산 국제·연안여객선 터미널과 군산항, 새만금 신항을 잇따라 순시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 실현 아동 권리 보장하는 지역사회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군산시 민선 6기 최우선 시정목표인 '어린이 행복도시'가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가 유네스코(UNICEF)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일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며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특히 이번 인증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 단위로는 최초인데다, 유네스코가 1946년에 창립된 유엔기구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시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고 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상적 개념의 어린이 행복을 구체화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정주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 '어린이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어린이의 안전·건강·보호·참여력 개발을 위한 시책 발굴에 총력을 쏟아 지난 해 1월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했다. 이어 시 단위 아동친화도시 자료 개발 및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어린이 권리 보장을 위한 전용시설 확충 전국 최초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사업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27개 읍면동 확대 등 어린이행복도시 조성 기본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아동 친화적 법체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어린이 행복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아동 친화도 평가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협업시스템을 각각 구축한 데 이어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시켰다.

또한, 아동권리 인식 개선 및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 포럼 및 100인 원탁회의 개최,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시 46개 전 부서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으로 시와 민간이 협력해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국제어린이마리온대회, 가천(이길여)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월에는 군산어린이행복 전국동요공쿠르 등 어린이 관련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단체들이 공동에 최을 요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완성시킨다는 야심찬 전략을 수립했다.

시정전반에 아동영양행 사행, 가화반비성 부모교육, 수유누리 가족사업, 어린이행복예산서 등 지속적인 어린이사업 발굴 및 예산지원, 아동친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운영을 추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시정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관 행복도시추진위원회간의 3섹터 협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간커버넌스를 통한 정책 발굴과 어린이 신문 발간,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운영, 어린이 청소년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어린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전국 시·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라는 자부심을 인증서를 받는 단순 행위가 아닌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시민과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며 "아동친화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생활용수 급수체계 개선 방안 추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생활용수 방안 수립

익산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 하여 객관적인 자료 공개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체 상수원이나? 광역상수원 이냐?"의 소모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용수 급수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일일 124,67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자체 상수원인 대간선수로 이용하여 71,017톤을 동 지역에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53,653톤을 읍면지역은 전체 동지역은 자체 생산한 수돗물과 혼합되어 공급하고 있다.

자체 상수원인 대간선 수로의 경우 농업용 수로로 완주군 고산면 어우보에서 익산시 신흥정수장 취수구까지 약 28km 구간으로 1953년부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간선 수로의 약 75%가 완주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완주 동동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2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영농규모와 인구가 증가면서 수질오염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역상수원 용담호의 경우 상수원의 수질 안전성은 기대되는 용담호가 급수계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되어 광역으로 전환 될 경우 동 지역 수용가에 한해 물이용 부담금이 현재 분당 58.76원에서 160원으로 증

가하여 분당 101.24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가정에서 한 달에 15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세대 당 한 달에 약 1,520원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에서는 생활용수 급수체계 개선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익산시 생활용수 급수체계 진단 평가 및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상수원 현장 탐방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실시하고 생활용수 급수체계 개선의 필요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 공개와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생활용수 급수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지역 전력 공기업, 에너지 취약세대 전기요금 지원 협약

18일 군산시와 군산지역 전력 공기업(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한국전력 군산지사, 한국전력 군산전력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에너지 취약세대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귀태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장, 오철규 한국서부발전노동

조합 군산지부위원장, 손태복 한국전력 군산지사장, 윤근화 한국전력 군산전력지사장, 현창태 한전KPS 군산사업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에너지 취약세대 전기요금 지원' 협약을 통해 에너지 취약세대인 홀몸어르신 40세대를 선정, 1년간 월 최대 2만5,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추진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사랑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해동환경 사건 진상규명 "시민감사반 운영으로 과거 청산"

정헌을 익산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석산복구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정 환경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익산의 황등석은 대한민국 3대 화강석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석재 산업은 보석, 섬유산업과 함께 익산의 근대산업을 견인하였으나, 석산개발 이후 남겨진 석산복구 문제는 익산시가 지향하는 국가식 품플러스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등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산해야 될 과거의 잔재물이 됐다.

이에 정헌을 익산시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석산 복구과 정상 유행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

며, 석산개발·복구 과장상 부조리를 뿌리 뽑고자 시민감사반을 편성 운영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감사반은 시민 중심의 명예감사관으로 구성되어 감사담당관과 함께 석산개발 및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석산 관련 모든 진상을 규명하여, 익산의 과거를 청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석산복구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법에 정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와 함께 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금고에 농협은행·KB국민은행 선정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군산시 금고를 맡아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금고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100여여원대 일반회계와와 기금을 관리할 제1급고로 농협은행을, 2080여 원대 특별회계를 관리할 제2급고로 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까지는 시 금고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개 부문으로 분리해 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이 관리해왔으나 행정자치부 예규 변경으로 일반회계와 기금이 통합관리되면서 시 금고가 2개 금융기관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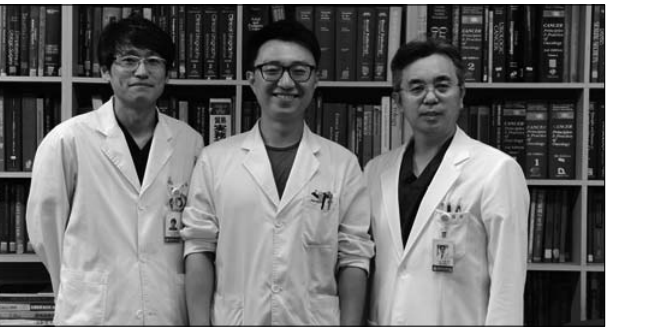
올해 시 금고 선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978년부터 40여년간 제2급고를 맡아 운영해온 전북은행이 탈락하고, KB국민은행이 새롭게 시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점이다.

이에 대해 심사에서 탈락한 전북은행은 군산시가 지역은행을 확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으며 강력 반발하며, 군산지역 전북은행 점포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은행 군산지역 지점장들은 17일 오전 군산시장실 앞에서 군산시가 지역은행을 확대한 채 시 금고를 선정했다며 항의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에서 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선정 심사는 공평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서일영 교수팀 신장암 관련 논문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비뇨기과교실의 안성훈, 오태훈, 서일영 교수팀이 지난 최근 서울 The K호텔에서 열린 제 68차 대한비뇨기과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본 학술대회에서 서일영 교수팀이 연구한 '이중에너지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요로결석성분 파악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성공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논문이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서 세계적인 비뇨기과 의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일영 교수는 '요로결석 진료자침서에 의거한 신석

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 연구팀이 요로결석의 진단에 관한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 요로결석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상식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다.

서일영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 후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비뇨기과 분야의 선두 주자로 이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한비뇨기과학회 우수논문상,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상 등을 수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인토로는 최초로 몽골국립의학연구소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행복꾸러미 전달

군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채영숙)은 18일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 의식 확산을 위해 관계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군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복나눔 행사로 어려운 이웃 500세대에 라면, 화장지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

눔을 소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나가는 등 일상 속 나눔이 자유롭게 오가는 따뜻한 사회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지역 풀뿌리 기부문화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군산시민들로 구성된 전북공동모금회 나눔봉사조직으로 기부 참여 안내 및 홍보활동, 개인별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